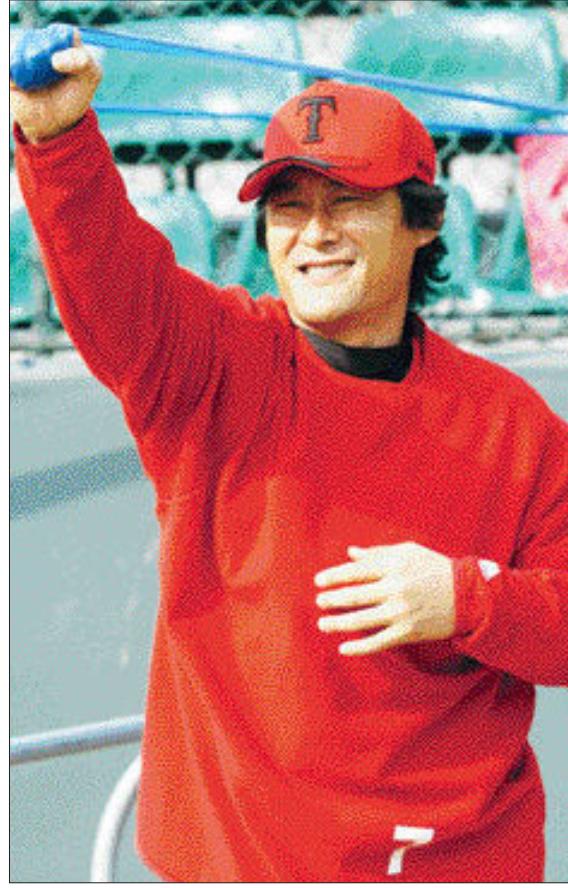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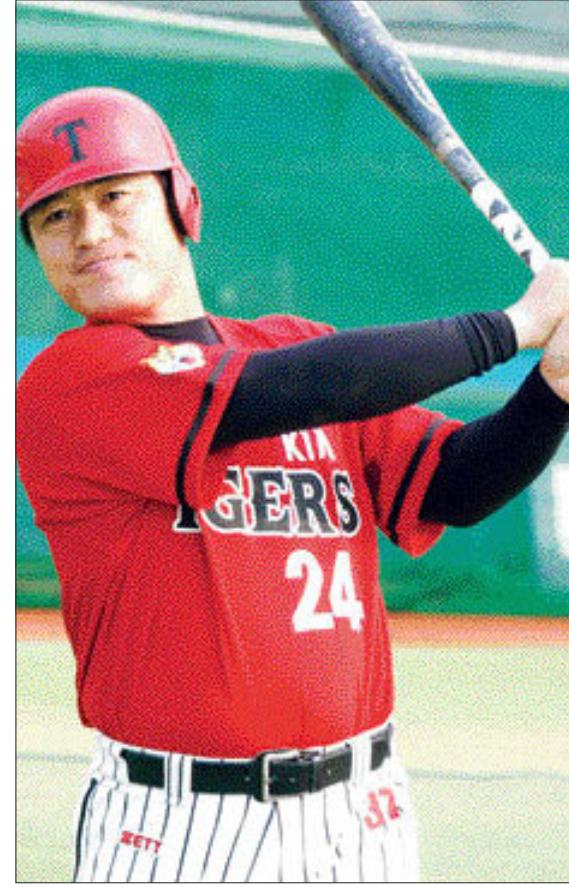
■ KIA 고참 3인방 “V10은 우리에게 맡겨라”



<이종범>



<심재학>



<조경환>

“후배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뛰겠다”

‘V10은 고참들에게 맡겨라!’

KIA타이거즈 ‘고참 3인방’이 한겨울 칼바람을 무색케 하는 맹훈련으로 동계훈련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동계훈련이 한창인 광주구장은 이종범(37), 심재학(35), 조경환(35) 등 고참급 선수들이 내뿜은 훈련열기로 가득하다.

외야수가 수비 포지션인 이들 3인방은 이용규와 김원섭 등 무섭게 성장하는 후배들과 포지션 경쟁을 벌여야 하는 탓에 잠시라도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팀 주장을 맡은 이종범의 각오는 누구보다 남다르다.

2006시즌 2군행의 수모를 겪기도 했던 그는 자존심도 되찾고, 프리에이전트(FA) 계약 마지막 해인 올해엔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이종범은 자율훈련기간동안 집 주변 헬스장 등에서 웨이트트레이닝 위주로 일찌감치 몸만들기에 돌입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체력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팀 동계훈련 시작 이후부터는 누구보다 일찍 훈련장에

자율훈련 기간 중 체력 강화 주력

“팀 우승위해 솔선수범” 당찬 각오

나와 배팅·수비훈련, 웨이트 등 다양한 훈련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후배들에게도 훈련방식을 조언해 주는 등 팀 주장으로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종범과 함께 올해 FA계약이 종료되는 심재학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심재학은 프로데뷔 후 처음으로 비훈련기간동안 개인 훈련을 갖는가 하면 팀 훈련이 한창인 요즘엔 선·후배들과 어울려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심재학과 같은 고령대 둘째생 ‘이적생’ 조경환도 신인 못지 않은 훈련량을 소화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SK에서 방출된 후 KIA에서 ‘제2의 야구인생’을

시작한 그는 2006시즌이 끝난 직후부터 남해전지훈련, 일본 미야자키 합동훈련 등 모든 팀 훈련에 합류, 풀 시즌에 대비한 체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조경환은 “젊은 선수들에 비해 체력적인 부분이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훈련 밖에는 없다”면서 “올 시즌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남은 훈련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마지막 야구인생을 멋지게 꽂아우고 싶다”며 당찬 각오를 밝혔다.

이를 고참 3인방을 지켜본 서정환 KIA 감독은 “눈빛들이 달라졌다. 훈련도 젊은 후배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면서 “올해는 무엇인가를 보여줄 모양”이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서 감독은 “고참들이 열심히 해야 팀 분위기도 살아난다”며 “19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스프링캠프에서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의 훈련 페이스라면 올 시즌 활약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프로야구 현대 농협, 인수추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인수를 검토중인 노현중양회가 한국야구위원회에 연고지 서울 이전과 전면드래프트를 실시를 요구해 구단 인수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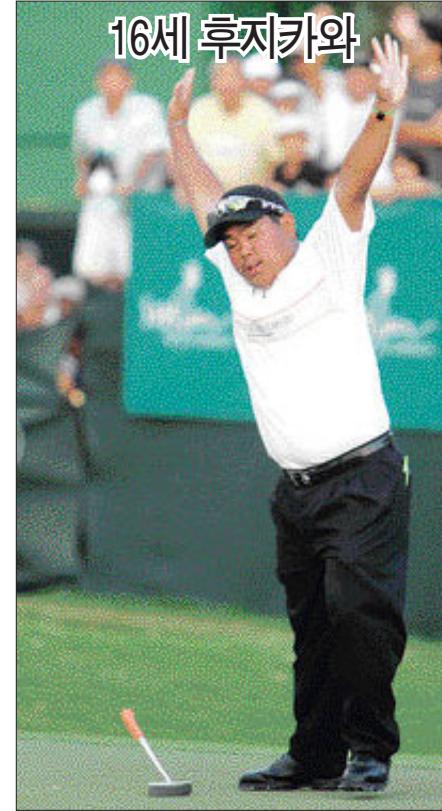
농협은 15일 오후 하일성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현대 유니콘스 인수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뒤 올 시즌부터 프로야구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연고지를 수원에서 서울로 옮겨 줄 것을 전면드래프트 실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까지 “실무 단계에서 검토중”이라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농협이 오후 실무책임자끼리 만난 자리에서 프로야구 참여를 위해 구체적인 요구조건까지 밝힘에 따라 현대 야구단 인수를 기정사실화했다.

농협은 앞서 지난 10일 현대 유니콘스의 최대 주주인 하이닉스반도체와 80억원에 주식 양도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 진입을 위해 현대가 치급해야 하는 비용 54억원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혀 매각 대금이 역대 최저 수준인 13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인수를 전제로 구체적인 제안을 해온다면 KBO는 운행난을 겪고 있는 현대 구단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농협의 요청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답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6세 후지카와

▶공동 20위 웃고 ▶컷 탈락 울고

하지만 여자라는 점, 그리고 185cm에 이르는 큰 키와 소득 수준, 세계 골프계 인지도 등은 뚜렷하게 위상미가 앞서 있다.

위성미가 대회 1라운드에서 이미 탈락이 예상되는 저조한 성적을 내자 언론은 후지카와가 PGA 투어대회 사상 두 번째로 나이 어린 컷 통과자가 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하와이 모アナ루아고교에 다니는 아마추어 후지카와는 2라운드까지 3언더파 137타, 공동 25위의 성적으로 컷을 통과했고, 위성미는 예상대로 펼쳐져 가까운 성적으로 고배를 마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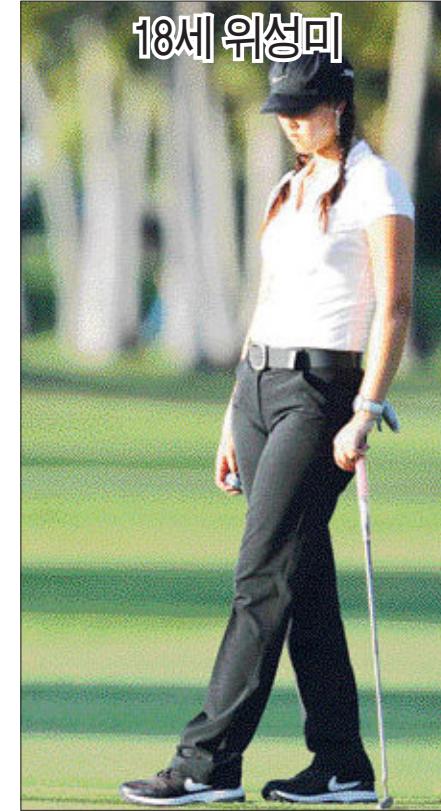
대회에 취재한 온 기자들은 위성미보다 후지카와에게 달려들었다. 대회에 처음 출전했을 때와는 달리 남자대회인 소니오픈의 컷 통과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고 언론 등의 관심이 다소 식은 가운데 경기를 펼쳤던 위성미는 2라운드 후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다.

둘은 같은 하와이 출신이고 나이도 비슷(16).

같은 하와이 태생의 남녀 ‘골프 천재’들이지만 15일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세계 여자 골퍼 최고 수준인 2천만달러의 돈을 벌어들이는 위성미는 4년째 이 대회에 출전한 이래 최악의 성적으로 예선에서 탈락했고, 신장 155cm의 ‘무명의 신동’ 후지카와는 공동 20위에 올라 세계 골프계에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회에 취재한 온 기자들은 위성미보다 후지카와에게 달려들었다. 대회에 처음 출전했을 때와는 달리 남자대회인 소니오픈의 컷 통과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고 언론 등의 관심이 다소 식은 가운데 경기를 펼쳤던 위성미는 2라운드 후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다.



18세 위성미

심지어 외신의 한 기자는 위성미에게 후지카와를 아느냐는 질문을 하기까지 했다. 위성미는 이에 대해 “한 번도 같이 쳐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면서 “여린 나이에 대단하다”고 평가를 내려줘야 했다.

위성미는 소니오픈에 4년째 스폰서 초청을 받아 출전했으나 후지카와는 지역 예산을 통해 어여사리 등단한 무대였다.

후지카와가 철석동으로 태어난 미숙아로 생존 가능성이 허락했으나 수술에 수술을 거듭한 끝에 허름하게 생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지막 날 갤러리의 격려는 더욱 대단했다.

화끈한 리시브

아르헨티나의 클라리사 페르난데스가 15일(한국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07 호주오픈테니스 여자 단식 1라운드에서 주자나 온드라스코바(체코)의 공을 받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4위…2주 연속 톱 10

PGA 소니오픈 최종

‘한국산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의 초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최경주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골프장(파70·7천600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쳤다.

4리운드 합계 9언더파 271타로 대회를 마무리지은 최경주는 공동 4위로 대회를 마쳐 개막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톱10’에 입상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1번홀(파4)에서 1타를 잃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최경주는 9번홀까지 1타도 줄이지 못해 상위권 입상이 어려워지는 듯 했다.

그러나 10번홀(파4)에서 이날 첫 버디를

벌여내 분위기를 바꾼 최경주는 14번홀(파4)과 17번홀(파3)에서 버디를 보태 순위표 상단까지 치고 올라왔다.

18번홀(파5)에서 1.2m 버디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웠지만 후반 9번홀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3개를 끌어내는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다.

개막전 때 보여줬던 견고한 아이언샷은 이번 대회에서 그린 적중률 1위(75%)까지 올라 작년에 착수한 스윙 교정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우승컵은 PGA투어에 뛰어든 지 15년째를 맞는 풀 고이도스(43·미국)에게 돌아갔다.

버디 6개와 보기 3개를 둘어 3언더파 67타를 친 고이도스는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66타로 칠스 하웰3세(미국), 루크 도널드(잉글랜드) 등을 1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